

(3) 사회계열

【문제 1】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십시오.

가) “허물어진 우물에서 사는 개구리 이야기를 못 들었나? 개구리가 자라에게 말했다. ‘나는 즐겁네. 나는 나와서는 우물의 난간 위를 뛰어다니고, 들어가서는 우물 벽에서 떨어져 내린 벽돌 끝에서 쉬며, 물에 들어가면 겨드랑이까지 물이 닿고 턱까지 물이 차며, 진흙에 얽어지면 발이 빠지고 발등이 잠겨버리지. 주위를 돌아보면 장구벌레나 게나 올챙이 따위 가운데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녀석은 아무도 없어. 한 웅덩이의 물을 내 맘대로 하면서 얇은 우물에 도사리고 사는 즐거움, 이 역시 최고일 거야. 자네도 가끔 들어와보는 게 어떤가?’ 동해의 자라가 들어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왼발을 채 들여놓기도 전에 오른쪽 무릎이 이미 우물에 꽂 끼어 버렸던 거야. 그래서 뒷걸음질 하면서 물러나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 ‘천리의 먼 거리를 가지고도 그것의 크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천 길의 높이를 가지고도 그것의 깊이를 남김없이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 우(禹) 임금 때는 10년 동안 아홉 번 홍수가 났지만 바닷물은 조금도 불어나지 않았어. 탕(湯)임금 때는 8년 동안 일곱 번이나 가뭄이 들었지만 해안가의 수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수량은 짧거나 긴 시간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고, 비의 많고 적음에도 수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동해의 큰 즐거움이지.’ 허물어진 우물에서 사는 개구리는 자라의 설명을 듣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란 다음 멍하니 제정신을 잃어버렸지.”

나) 1000 cc짜리 병에 물이 500 cc 들어 있다.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는 ‘물이 반 차 있다’고, 부정적인 이는 ‘병이 반 비어 있다’고 생각한다. 중동 상황을 다룬 똑같은 내용의 TV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도 이스라엘인은 지나치게 이스라엘에 비판적이라고 느끼는 반면, 아랍인들은 정반대 인상을 받는다.

행동경제학에 ‘틀(frame)’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간은 항상 객관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틀’을 기반으로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뇌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 이미 특정 편견과 해석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더 빠른 반응을 할 수 있다. ‘어두운 숲은 위험하다’는 틀을 갖고 있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작은 소리에 반응할 수 있다. 물론 틀을 통해 잃는 것도 있다. 바로 객관성이다. 소리의 원인이 맹수가 아닌 작은 토끼였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나만의 틀에 갇힌 해석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확한 분석은 현명한 선택의 어머니다.

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영어를 잘 쓰는 기술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비록 그런 투자는 대부분 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규모는 무척 크다. 아쉽게도, 그런 투자의 효율성

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런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장치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적 장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일이다. 영어가 공용어가 된다면, 개인들의 단편적 투자가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영어를 공용어로 삼은 나라들이 거두는 혜택들은 많고 크다. 시민들이 영어를 보다 잘 듣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 밖 사정에 대한 시민들의 안목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젠 우리 사회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일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물론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일은 지금 우리의 감정에 너무 거슬린다. 우리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말을 아끼고 써야 한다는 주장에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나 자연스러운 것이 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조선어에 큰 투자를 했다.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큰 값을 치르더라도 조선어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까지 미리 그런 판단으로 구속하는 것이 옳을까? 그들에게 국제적인 영어와 민족어인 조선어 가운데 자신들의 삶에 나은 것을 모국어로 고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 물음에 대해 그들도 조선어를 쓰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뜻 답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간단한 머릿속 실험을 해 볼 것을 요청한다. 만일 막 태어난 당신의 자식에게 영어와 조선어 가운데 하나를 모국어로 고를 기회가 주어진다 면, 당신은 자식에게 어느 것을 권하겠는가? 한쪽엔 영어를 자연스럽게 써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일상과 직장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보지 않고 영어로 구체화된 많은 문화적 유산들과 첨단 정보들을 쉽게 얻는 삶이 있다. 다른 쪽엔 조상들이 써 온 조선어를 계속 쓰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영어를 쓰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기피하고 평생 갖가지 불이익을 보고 영어로 구체화된 문화적 유산들을 거의 향유하지 못하고 분초를 다투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얻지 못하고 뒤늦게 오역이 많은 번역을 얻어서, 그것도 이용 가능한 정보들의 몇 십만 분의 일이나 몇 백만 분의 일만 얻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삶이 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삶을 자식에게 권하겠는가? <중략> 언어는 도구다. 언어가 사람에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리고 모국어가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언어가 도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은 오롯이 남는다.

라) “세가(勢家)나 대족(大族)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받은 책도 있고 하사받은 책도 있을 것입니다 만, 도리어 무용한 물건이 되어 있는 경우도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만약 서점을 세운다면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살 것이니, 선비들은 만약 한 책을 다 읽으면 그 책을 팔아 다른 책을 사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고팔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책을 읽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책을 빌려주는 것도 바보, 돌려주는 것도 바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전해 받은 책을 파는 것을 잘못으로 여겨 팔려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묶어 높은 곳에 두고 한 번도 펼쳐 읽지 않아 좀벌레의 먹이가 된다면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외방의 유생 중에는 비록 학문에 뜻이 있지만 서책이 없어 독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은 값이 없어 사지 못하고, 혹 값을 마련할 수 있다 해도 어떤 책은 상면포 3~4필은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값이 이처럼 비싸므로 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서점의 책을 그 값을 적절히 매기고 감장(監掌)하는 관원을 두어 사고팔게 하여, 그 일을 오랫동안 계속한다면 폐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 중에는 집이 가난하여 책은 없었지만, 저자의 서점에서 책을 읽어 성공한 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점을 설치하고 서책을 내놓는다면 뜻있는 사람은 비록 사서 읽지 않아도 하루 종일 읽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니, 지극히 편리하고 이로울 것입니다. 해당 관청이 계획을 세워 설립하게 하소서.”

중종 24년 5월 26일, 장령 어득강은 서점 설치를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은 ‘전에도 의논한 적이 있는데 모두 안 된다고 했다’면서 실행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내린 결론은 이렇다.

“서점을 설치하는 일은 글을 숭상하지는 명분이 있어 좋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풍속에 일찍이 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또 만일 과부의 집에서 책을 파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사로이 서로 사고팔지 아마도 서점에 내놓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책을 내놓지는 않고 서점만 설치한다면, 법이 어떻게 시행되겠습니까? 대저 시행할 수 있는 법은 세워야겠지만 시행될 수 없는 법을 세우면 비단 유익함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있을 것입니다. 신들은 이 일은 할 수 없는 듯합니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와 라)에서 주장하는 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2】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평화의 토대는 근대적 의미의 보편적 번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령 번영이 달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성이나 행복, 평상심을 손상시킴으로써 인간의 평화를 파괴하는 탐욕이나 질투의 충동을 불러일으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평화를 좀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평가는 안정감을 느끼는 상황에만 국한되며 따라서 모순적이다. 부자들의 부는 세계의 한정된 자원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며, 그래서 자원을 놓고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욕망을 키우거나 확장하는 일은 지혜에 대립된다. 또한 그것은 자유와 평화에 대립되는 것이기도 하다. 욕망이 커지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며, 그래서 생존을 위한 두려움도 커지게 된다. 욕망을 줄이는 경우에만 분쟁과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인 긴장 상태를 진정으로 줄일 수 있다. 영속성을 위한 경제학은 과학과 기술의 재편도 포함한다. 여기서 과학과 기술은 지혜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형 기계화는 경제력이 점점 더 집중되는 상황을 동반하므로,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가 진실로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생산 방법과 장비를 요구한다고 답변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값이 싸며, 소규모 이용에 적합하고, 인간의 창조적 욕구에 부합될 수 있는 것. 이러한 세 가지 특성으로부터 비폭력이 생겨나고 영속성이 보장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출현한다.

나) 경제성장은 빈곤의 감소 뿐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도 가져왔다. 세계 모든 인구의 평균 소득은 1820년부터 1992년까지 7~8배 증가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극빈층 비율은 84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감소했다. 경제성장은 빈곤과 물질적 결핍에서 탈출하는 동력원이다. 최근 성장률이 낮아지고 불평등이 확장되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물질적 결핍으로부터의 탈출 욕구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쉽게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빈곤 탈출의 수단은 누적된다. 사람들이 자신 뒤의 터널을 막을 수도 있지만, 터널을 파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차단할 수는 없다. 세계 인구 대부분은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으며 이들에게는 성장 저하가 없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에 살고 있는 25억 이상의 사람들은 최근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높은 성장률을 목격했다. 성장률이 감소된다 해도 앞으로 수년간 평균 이상의 따라잡기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가장 성공한 나라에 속했다. 다른 큰 나라들도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은 세계 평균치를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브릭스* 국가들은 확실히 나라 크기의 이익을 보고 있다. 나라가 클수록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저변이 넓다. 이를테면 과학적 발견의 성과가 과학자나 연구원 인구의 비율이 아니라 과학자 또는 연구원의 절대적인 수에 달려있다면 이는 분명 큰 나라에 유리하다. 지금도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나쁜 일은 생기기 마련이고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불평등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류가 지혜를 모아 미래에도 이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브릭스: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국을 일컫는 용어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류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두 관점을 대조하고 제시문 가)에 제시된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제시문 나)를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40점)

※ 다음 도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2014년 환경성과지수¹⁾의 범주 및 지표별 의미와 순위

환경성과지수의 범주	환경성과지수의 지표	환경성과지수의 지표의 의미	178개국 중 대한민국 지표 순위	178개국 중 대한민국 범주 순위
환경성 질병부담	영유아사망률	아동이 출생 후 1년에서 5년 사이에 사망할 확률	29	29
대기보전	실내공기오염	고체 연료 사용 인구비율	1	166
	미세먼지 평균노출인구	인구수를 가중치로 한 미세먼지 농도	171 ²⁾	
물보전	식수 접근성	위생적 급수 시설 사용 인구비율	63	37
	물위생	양질의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1	
수자원	하수처리	폐수 처리 비율	18	18
생물 다양성	보호지역/국토면적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서식지(국토면적 대비)	124	108
	보호지역/세계보호구역 면적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서식지(세계보호구역 면적 대비)	121	
	해양보호	국가별 배타적 경제수역 중 해양동식물 보호지역	45	
삼림	산림손실	2000년과 2012 사이 산림(숲)의 감소 비율	62	62
기후변화	kWh당 CO ₂ 배출량 추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생산된 전력(kWh)대비 CO ₂ 량의 추이	91	93
	탄소집약도 ³⁾ 추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탄소집약도 추이	90	
	탄소집약도 추이 변화	탄소집약도에서의 2000-2005년 추이와 2006-2010년 추이의 변화	112	

주 1)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미국의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공동으로 환경성 질병부담, 대기보전, 물보전, 수자원, 생물 다양성, 삼림, 기후변화 등의 범주에서 20여개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환경 보존 및 개선 노력을 평가한 점수와 순위

2) 중국은 176위, 일본은 128위임

3) 탄소집약도: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₂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

<표 2> 2014년 환경성과지수의 범주별 점수, 순위, 10년간 개선 추이

환경성과지수의 범주	환경성과지수의 범주별 점수	범주별 178개국 중 대한민국 순위	대한민국의 범주별 10년간 개선 추이
환경성 질병부담	96.93	29	7.75 %
대기보전	62.24	166	3.18 %
물보전	85.92	37	10.68 %
수자원	83.68	18	-
생물 다양성	50.40	108	16.94 %
삼림	33.76	62	-
기후변화	41.55	93	-
종합	63.79	43	7.37 %

<표 3> 우리나라 환경성과지수의 최근 추이

구분 \ 연도	2010	2012	2014
환경성과지수(종합)	57.00	57.20	63.79
순위/평가대상국가수	94위/163개국	43위/132개국	43위/178개국
전체 평가대상국가 중 백분율 순위	57.7%	32.6%	24.2%

[문제 3] <표 1>, <표 2>, <표 3>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을 기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2)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3) 사회계열

■ 출제의도

[문제 1]

- 각각의 제시문이 담고 있는 포괄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동시에 이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들을 자신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각각의 제시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출전의 지식과는 상관없이 각 제시문의 부분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 아울러 제시문이 생략하고 있는 부분까지 상상력을 발휘하면 더 좋을 것임. 우화가 함의하고 있는 본질적 내용과 함께 칼럼 형식의 짧은 글에서 보이는 구체적 의미를 찾아내서 이들을 바탕으로 두고 다른 글들의 속뜻을 밝혀냄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 글의 전체 구성 능력, 논리적 문장, 문장의 정확성 등도 함께 평가함.

[문제 2]

본 문제는 개인의 윤리의식에 관한 지문을 통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대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주어진 개념을 사용하여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비판하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 중심의 윤리의 의미, 그 한계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속성이라는 개념도 현대 환경 문제의 유형과 특징,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려 등의 단원을 통해 익숙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논지는 이 개념을 사용하여 지문의 내용에 입학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며, 논리력과 문장구사력 또한 주요 평가 내용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본문에 없지만, 이 또한 학교에서 수없이 학습한 내용이다. 과학과 기술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자세, 인류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이 주어진 두 제시문에 모두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속의 다양한 문제에 담긴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세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국어 수업 중에 학습한 내용을 평가한다.

도덕, 생활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적 가치와 인간 사회와 인류 공영에 필요한 자질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향후 미래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그것이 현실적인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슈가 사회 윤리, 자연을 포함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논점을 전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 이슈를 윤리와 도덕과 연관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였다.

[문제 3]

우리나라 환경 특성을 환경성과지수를 통해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도표에 대한 분석력, 도표간 종합, 문제 해결 대안 제시의 창의력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 채점기준

[문제 1] (30점 만점)

1) 앞의 <가>와 <나>의 제시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10점 부여하고, <다>과 <라>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앞의 내용과 일치된 논리를 펴나간다면 15점을 부여함. 또한 문장의 정확성, 논리의 명확성, 창의적 글 내용이라면 5점을 부여. 총점 30점 만점에 각각 상응하는 점수 부여.

2) <다>와 <라>의 글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견이 아닐 수 있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논리와 논지가 명확하면, 또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함. 또한 <다>의 내용과 <라>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펼쳤어도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

3) 단, 글 <가>와 <나>의 우화나 개념을 설명하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면, 전체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할 것.

[문제 2]

두 관점을 대조하는 부분(15점)

- 최소한 3개 이상의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대조하는 범주(카테고리)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지

대조점이 하나이면 15점, 둘 이면 10점, 셋 이상이면 5점

각각의 대조한 내용이 지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살펴보고 부분 점수 부여
충실하게 반영하면 5점, 부족하지만 큰 문맥이 맞으면 4점, 내용이 불충분하면 3점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제시문 나를 비판하는 부분(15점)

영속성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점수 없음(0점)

논지의 전개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어 (15, 10, 5점 부여)

[문제 3] (40점 만점)

1) <표 1>, <표 2>, <표 3>의 분석 (20점) :

- 예시 답안의 첫 번째 ① - ⑤ 참조
 - 각 표에서 주요 특징 도출
 - 구체적인 수치 인용도 중요함
- 고려사항
 - ① - ④와 같이 단순히 표를 해석하여 3개 이상 쓰면 “우수”
 - ⑤와 같이 앞의 분석을 종합하는 경우가 있어야 “만점”

2) <표 1>, <표 2>, <표 3>의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20점)

- 예시 답안의 두 번째 - ① - ③ 참조
- 나름의 카테고리 및 논리를 구축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세 가지 이상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만점
- 분석 결과 혹은 문제점을 단순히 반복(예, 단순히 ‘OO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하면 점수를 주지 말 것

■ 모범답안

[문제 1]

우화가 보여주는 미덕은 어리석음을 일깨운다는데 있다.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현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거나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편견을 넘어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우물 속의 세상이 전부다. 그러나 더 넓고 큰 밖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개구리는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필요한 때가 많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구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고를 달리 할 수도 있고, 현실적 이득과 감당해야 할 손해도 달라진다. 그렇지만 언어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단지 효율성만으로 취사선택을 해서는 안되는 지적이며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세계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에 국어도 정보화, 세계화, 표준화를 목표로 계획을 세워 발전을 해나가야 마땅하지만, 쉽게 우리말을 버리고 영어의 공용화를 도모해보자는 발상은 어쩌면 자기만의 프레임에 빠진 어리석은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발상은 참신하다기보다 객관성을 상실한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위험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다.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송곳으로 땅의 넓이를 측정하려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하등 다르지 않다. 우리 것이어서 소중하다는 주장은 틀에 갇힌 논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도 함께 버리게 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어리석은 판단과 분별이다.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기존의 프레임에 빠져 새로운 것에 대한 이익과 효율을 감지 못하고 기존의 틀만 고집한다면 발전은 없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내부 갈등과 지역, 성별, 세대, 계층, 인종간의 벽도 쉽게 허물지 못하고 만다. 우화는 작은 세계 안에 안주하고 있을 때 큰 세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르치며, 우리가 정확한 상황 분석 없이 특정 편견과 해석에 사로잡힐 때 더 많은 것을 잃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지혜를 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 2]

욕망에 대한 태도에 대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태도는 대조된다. [제시문 가]는 물질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살고 부를 축적하는 욕망을 키우거나 확장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의 축적에 대한 욕망은 충돌을 야기시키며, 인류의 자유와 평화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문 나]는 부를 이루려는 욕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부에 대한 욕망은 빈곤 극복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적 성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한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류 번영에 대한 의미 또한 대조된다. [제시문 가]는 인류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성취 외에도 지성, 행복, 평정심 등 경제 상황 외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근대적 의미의 보편적 번영을 비판하는 [제시문 가]는 빈곤 감소, 경제 성장과 같은 물질적 토대 위에서 인류 번영을 논하는 [제시문 나]의 태도와 대조된다.

[제시문 가]는 경제력의 집중화를 의미하는 대량생산, 대량 소비의 경제 메커니즘에 대해 비판적이다. 진정한 지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싸고 소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로부터 나온다. 반면 [제시문 나]는 대형화와 규모의 경제를 선호한다. 큰 규모의 경제가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포기하는 않지만, 인간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자원의 한정성과 비폭력성, 영속성을 고려한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자연을 도구화하고, 지식을 통해 자원을 활용하는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시문 나]와 대조된다.

[제시문 가]에 제시된 영속성은 과학적 성과, 성장의 극대화 보다는 자원의 한계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한 발전, 적절한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다. 빈곤의 감소와 물질적 생활수준의 개선, 경제 성장률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시문 나]의 견해에서 한정된 자원에 대한 불균형적인 소비, 자원을 점유하기 위한 충돌과 갈등, 대량 생산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을 수 없다. [제시문 나]는 인간과 자원의 공생, 기후와 환경 파괴 등 환경, 경제, 사회적 생산을 연속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핍되어 있다. 산업화, 물질적 발전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 자연을 도구화하고, 인간과 자연 전체에 큰 위기를 불러왔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데, [제시문 나]에는 이와 같은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시문 나]가 강조하고 있는 과학적 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영속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

[문제 3]

첫째, 우리나라 환경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표 1>에서는 실내공기오염, 물위생, 하수처리, 유아사망률 등은 상위권에, 미세먼지평균농도, 인구, 보호지역/국토면적, 보호지역/세계보호구역면적, 탄소집약도 추세 변화, 탄소집약도 추세,

kWh당 CO₂배출량 추세 등은 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② <도표 2>에서 환경성과지수의 범주별 특징을 살펴보면, 환경성 질병부담, 물보전, 수자원 등에서는 상위권에, 대기보전,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등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③ <도표 2>에서는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 16.94%, 물보전 10.68%로 우리나라 평균 이상의, 대기보전의 경우 3.18로 낮은 노력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수 있겠다.

④ <도표 3>에서는 환경개발지수로 살펴볼 때, 총점 63.7로 187개국 중 43위, 상위 24.2%에 해당하는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환경 상태는 어느 정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연도별로 순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상을 종합하면, 실내공기오염, 물위생, 하수처리, 영유아사망률 등 국민 생활 관련 영역에서는 매우 우수하나, 미세먼지 평균노출인구, 보호지역 관련(생물다양성), CO₂배출이나 탄소집약도 추세(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이나 산업시설 관련 부분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 인식 및 생활변화, 환경친화적 정부정책 및 과학기술 발전,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개인 인식과 생활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인의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그 일부로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생태계 내의 모든 개체는 가치있고, 존중되는 평등 혹은 공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후대 역시 환경의 이용권이 있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쓰레기 줄이기, 물절약, 자동차 이용 제한 등 일반 생활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행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 이는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자원보호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② 환경친화적 정부정책 및 과학기술 발전: 그동안 정부는 국민편의 및 경제성장, 또 이를 위한 자연 개발 중심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에 도시화, 공장건설 등을 우선시하였다. 이제는 숲이나 공원 조성, 풍력/수력/조력/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 및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③ 국제협력: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서의 문제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의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나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또 기후 변화 대응책의 하나인 “탄소배출권 거래”의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참여한 이해대립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들 사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중재하고, 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 국가, 국제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우리 자신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라 하겠다.